



3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신속 추진하라"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음 8월 18일) 제3589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튜링지로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전북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전체회의'에 김관영 도지사(협의회 위원장)와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권기봉 의장을 비롯해 전북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등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정부기관, 노사관계 전문가 등 노사 관련 분야를 대표하는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 맞손을 잡고 있다.

기업·근로하기 좋은 환경 내실화

전북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전체회의

노사분쟁 중재 위한 조정위원회 설립 등 집중 논의 재해 예방 위한 안전사고 신고 모바일 앱 구축도 김관영 도지사 "상생 발전 위해 협의회 역할 중요"

전북특별자치도 내 노동 관련 현안과 경제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는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 전체회의가 19일 열렸다.

특히,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사분쟁에 대한 조정위원회 설립 등 노사문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됨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기업·근로하기 좋은 환경이 더욱 내실있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전북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노사민정협의회 전체회의에는 협의회 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권기봉 의장을 비롯해 전북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등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정부기관, 노사관계 전문가 등 노사 관련 분야를 대표하는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40여명이 참석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지역의 노동 현안과 경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의 노사안정 및 산업평

화 정착과 고용, 산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 유관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2001년에 설치된 협력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회 최초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4개 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 실무협의회, 노사상생·분쟁조정분과협의회, 산업안전보건협의회 등 모든 구성원이 한데 모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노사문화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정책 시행계획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역할 강화 방안과 함께, 민간 주도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노사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도민이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산업안전 모바일 앱 구축 계획 등이 논의됐다.

특히, 노사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노사 문제 해결과 신속한 분쟁 조정을 통한 경제적 손실 최소화, 노사 간 대화와 협력 문화 조성 등 지역 내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도민 모두와 근로자들이 일상 생활과 산업현장 등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실시간 제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 모바일 앱 구축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이 앱이 구축될 경우 산업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은 물론 근로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등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각의 위원들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 환경, 노사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사회적 요구 등 공적영역이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동체의 상생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 노사민정협의회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초로 노사민정협의회 전체 위원이 모인 이 자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대화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노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세계인권선언 76주년... 포용하는 전북

인권의 가치, 축제로 승화

전북자치도, 23-28일 도 전역서 '인권문화축제' 박준영 인권변호사 강연·여성 인권 투어 등 다채 모두가 참여하는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의 장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권을 향한 뜨거운 공명의 물결을 일으킨다. 전북자치도는 세계인권선언 76주년을 기념해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도청 및 도내 일원에서 '2024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 도시 전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도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인권 행사를 통해 인권 존중문화 확산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예정이다.

이번 인권문화축제는 도와 14개 기관·단체들이 협력해 개회식, 인권 공연, 인권 끝판벨, 인권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에 의미를 두고 있다.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의 개회사와 문승우 도의회 의장의 축사 그리고 김양이 도 인권위원장 환영사가 이어진다. 또한, 도내 초·중·고 장에 청소년으로 구성된 '캠버오케스트라 위더스(WITHUS)'의 연주와 이주배경청소년 '일씨구 모자이크 국악단'의 국악 공연과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영화 '재심'의 실제주인공인 박준영 인권변호사의 '지혜, 용기, 절제를 아우르는 인권'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진행되며, 인권의 다양한 관점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어서 도민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교육도 실시하며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의 인권주간행사에서는 여성 인권 투어,

청소년 인권 끝판벨, 여성장애인 합창단 공연, 읍내버스 다큐멘터리 상영 등 인권과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사)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4개 기관·단체가 주관하며,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다.

23일부터 24일까지는 도청 야외광장에서 12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인권홍보 부스와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작품 공모전에서 수상한 단편영화와 UCC, 웹툰 작품들이 전시되어 도민들이 직접 인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인권홍보 부스에서는 인권퀴즈,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촉구 서명, 인권인식개선 캠페인, 학교부적응청소년 인식개선 홍보활동, 노동상담, 장애인학대 인식조사 및 상담이 진행되며,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나라별 전통의상 전시 및 체험, 낱말퍼즐, 인권 4행시, 인권나무, 장애인 인권체험, 소품·공예제작체험, 노인인권 유사체험, 수어체험 등이 준비돼 있다.

정호은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인권문화축제는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인권 존중문화 확산의 장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이 인권의 가치를 느끼고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서는 인권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권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주안행사에서는 여성 인권 투어, 노력을 약속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축! 전주매일 창간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무주군의의회

새로운 변화, 함께하는 의정, 내일을 준비하는 무주군의의회가 되겠습니다

무주군의의회 MUJU-GUN COUNCIL

